

“허정무 스타일 사령탑 찾아라”

전남 “새 감독 후보 2~3명…내주 중 결정”

허정무 감독이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발탁되면서 신임 감독 찾기에 나선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빠르면 다음주내에 새 감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대 전남 단장은 18일 “축구계 지인들로부터 새 감독에 대한 추천을 받아 취합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2~3명 정도 허 감독 후임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다음주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지원자 신상을 구체적으

로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허정무 감독 스타일의 사령탑을 뽑고 싶다”면서 “나름 주에는 전남에 오고 싶어하는 분과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느긋하게 사령탑을 뽑을 계획이었던 전남이 대내 말해 외로 전지 훈련을 떠나기 전까지 감독 선임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입장은 바꾼 것이다.

2007 FA컵 축구선수권대회 우승으로 내

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따낸 전남으로서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상대와 일정까지 17일 확정되면서 더욱 서둘러야 할 입장에 놓였다.

전남은 일본 J-리그 간바 오사카를 비롯해 펠버튼 빅토리(호주), 촌부리FC(태국)와 함께 G조에 속해 있으며 내년 3월12일부터 5월21일까지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조별리그를 치른다.

전남은 국내와 외국인 감독을 가지 않고 에이전트, 지인들에게서 추천받은 축구지도자의 이력서를 세밀히 검토한 뒤 내부 평가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포기자 lucky@kwangju.co.kr

박지성 “복귀하면 골 넣는데 주력”

긴 부상과 재활 끝에 곧 복귀하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박지성(26)이 골에 대한 욕심을 내비쳤다.

박지성은 18일(한국시간) 맨유 훈련에서 “복귀하면 골을 넣는데 주장을 조짐을 맞추겠다. 복귀한 뒤 2~3경기 안에 골을 넣으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팀에 보탬이 되고 싶고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차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박지성은 부상에서 복귀한 뒤

맨유 훈련과 인터뷰

더 나은 경기력을 펼쳐보였다.

2006~2007 시즌 도중인 작년 9월10일 토트넘전에서 원발목 인대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100일 만에 복귀했던 박지성은 이후 한 경기에서 두 골을 뽑아내는 등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지난 4월 블랙번 로버스와 경기에서 오른 무릎 인대를 다쳐 다시 수술대에 오른 박지성은 애초 내년 1월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회복 속도가 빨라 오는 23일

에버턴전에서 복귀전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성은 그러나 서둘지는 않겠다며 조심스러운 모습도 보였다.

그는 “빠른 시간 내에 복귀하는 건 코칭스태프와 구단 의료진 덕분”이라며 “8개월여 그라운드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서두르고 싶지는 않다. 플레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성은 마지막으로 “부상으로 너무 오랫동안 떠나있었다 이제는 그라운드에서 다시 뛰며 좋은 경기력을 펼쳐보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최성국 세필드 초청 받아

22일까지 입단 테스트

트를 받은 김두현(25·성남)이 이어 영국 축구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지난 5일 축구해 테스트를 받고 돌아온 김두현의 입단 여부는 이번 주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은 “웨스트브롬이 김두현에 대해 긍

정적인 평가를 내린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토니 모브레이 웨스트브롬 감독은 “김두현이 창조적이고 재능이 넘치며 A매치에 40회 이상 출전해 풍부한 경험을 가졌다”며 높이 평가했다.

최성국이 도전장을 낸 세필드는 1889년 창단해 1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진 구단으로 작년까지 프리미어리그에 있었던 북부 지역 명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 대회인 잉글랜드 FA컵에서도 네 차례나 우승한 전통을 자랑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카카가 18일 스위스 취리히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고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 ‘생애 최고의 해’

유럽·월드사카 이어 FIFA ‘올해의 선수’ 영예

브라질 출신의 꽃미남 미드필더 카카(25·AC밀란)가 축구 선수 최고의 영예인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18일(한국시간) FIFA 홈페이지에 따르면 카카는 각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들이 한 표씩 던진 올해의 선수 투표에서 모두 1천47점을 얻어 504점을 모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FC바르셀로나)를 배 이상 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올해의 선수상 수상자로 뽑혔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차지하는 포르투갈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426점을 얻는 데 그쳤다.

카카는 유럽 축구 최고의 플레이어에게

주는 유러피언사카 골든볼(발롱도흐)과 월드사카마거진 올해의 선수상을 훙쓸 데 이어 올해 축구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권위의 상을 쟁취하며 생애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카카는 유럽 축구연맹(UFCA) 클럽 선수상,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 올해의 선수상과 2006~2007 UEFA 챔피언스리그 득점상도 받았다.

1982년 브라질리아 태생으로 히카르두 브레窸온 도스 산토스 레이테라는 본명을 갖고 있는 카카는 186cm, 76kg의 이상적인 체격에 득점력, 플레이 조율 능력과 슈팅력, 드리를 등 모든 재능을 타고난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배구 거포’ 김요한
드디어 프로서 뛴다

LIG와 연봉 1억원 입단 계약



‘얼짱 거포’
김요한 (22·광주전자공고 축업·인하대 축업 예정·사진)이 난항을 겪었던 남자 프로배구 LIG 순회보험과 계약 문제를 마무리해 프로 무대 데뷔 초 익기 에 들어갔다.

LIG 순회보험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인재니움 체육관에서 올해 신인 드래프트 때 전체 1순위로 지명했던 김요한과 연봉 1억원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김요한이 올해 월드컵에 참가하고 귀국한 지난 3일 첫 협상 결렬 이후 보를 만이다.

김요한은 앞서 1라운드 지명 선수는 계약금 없이 연봉만 7천만~1억원을 받도록 한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에 불만을 품고 귀국 직후 고향인 광주로 내려왔다. 구단의 ‘선수단 뒤 후협상’ 요청에 따라 9일 선수단에 가세해 훈련해왔다.

LIG 순회보험은 계약금이 없는 김요한의 상품성을 고려해 팀이 겨울리그에서 우승하거나 선수 본인이 신인왕까지 받으면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내년 연봉 인상으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김요한은 앞서 1라운드 지명 선수는 계약금 없이 연봉만 7천만~1억원을 받도록 한 한국전력(17:00-KBS N SPORT)과 지난 3일 첫 협상 결렬 이후 보를 만이다.

김요한은 앞서 1라운드 지명 선수는 계약금 없이 연봉만 7천만~1억원을 받도록 한 한국전력(17:00-KBS N SPORT)과 지난 3일 첫 협상 결렬 이후 보를 만이다.

한국축구 올 세계랭킹 42위로 마감

한국축구가 세계 랭킹 42위로 2007년을 마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난 17일 (한국시간) 발표한 올해 마지막 남자 축구 세계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랭킹 포인트 663점으로 지난 달과 같은 42위를 지켰다.

아시아에서는 지난 달보다 각각 한 계단씩 떨어진 일본(34위)과 이란(41

위)에 이어 세 번째다. 호주가 순위 변동 없이 48위로 뒤를 이었고, 북한은 두 계단 올라 115위가 됐다.

아르헨티나는 1523점으로 세계 최강을 유지했고, 브라질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이 2~5위를 차지했다. 새해 첫 FIFA 랭킹은 내년 1월16일 발표될 예정이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달보다 각각 한 계단씩 떨어진 일본(34위)과 이란(41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 주제

19(수)

▲07/08 칼링컵(맨체스터 시티 : 토트넘)(04:30·KBS N SPORT)

▲07/08 V리그 여자부(GS칼텍스 : 한국전력)(17:00·KBS N SPORT) 남자부(대한항공 : 한국전력)(19:00·KBS N SPORT)

20(목)

▲07/08 칼링컵(첼시 : 리버풀)(04:30·KBS N SPORT)

대인동삼일부동산

☎ (02) 31-1140, 32-1011 ~ 62-2532
(광주은행 신관점포, 대인동 소방서간판)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

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환

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

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

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

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

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

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

겠습니다.

첨단월계공인증개사

☎ (02) 4585-5011 ~ 2629-1718
(첨단지구 부영 LC빌딩 사거리)

★ 급매 매★

● 첨단 인근 비아동 일원 주거 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빌딩, 투자형, 토지 등

● 첨단 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공시지가 260만원), 230평

첨단 중심 상업매매

· 청부지방청사 2008년 개장 예상 314평

· 부영·호반아파트 정문 앞 145, 135평

· 빅마트·호수공원 부근 유통지역 100평

첨단 원룸 건물 급매

· 대8동 건145 원룸 17 쓰리룸 1개

· 보2000만 원 495만 원 매5억3천만

· 대7동 110평 원룸 15개

· 보2000만 원 480만 원 매4억8천만

· 대7동 70평 원룸 120 원룸 3 주

· 대7동 39평 보1억2천만 원 180만 원

· 대68평 건127평 + 주차장 2

· 대45평 건1 원룸 8 보8800만 원 300만 원 4200만 원 매4억7천만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 신기동, 부영② 부근

· 생신녹지 900평

· 안평동, 비아 증축① 부근

· 생신녹지 900평

· 도천동, 광동 8동 800평

· 700평 광동, 창고 적합

· 북구 지어동 30m 도로 인근 전후면